

제4차 임권의 하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⑤	5	④
6	①	7	④	8	②	9	⑤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④	15	②
16	⑤	17	⑤	18	③	19	④	20	⑤
21	②	22	①	23	⑤	24	②		

해설

1. [출제 의도] 발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기

④ @의 발화는 이전에 참여했던 '○○ 독서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한 발화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 독서 대화'의 참여 인원이 재작년에 이어 작년도도 줄어든 문제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 등에 논의하고자 하고 있다. ② 홍보의 부족이 참여가 적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에서 한 정적이었던 작년의 홍보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앞서 나왔던 내용인 선정 도서의 부족, 홍보의 부족을 경리하여 말하고 있다. ⑤ 문제점에 대해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 의도]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기

① [A]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선정도서에 포함하지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학생 3'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너무 다양화 되면 모둠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3권을 선정하자는 것을 제시한다. [B]에서는 선정 도서마다 화제를 미리 선정하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학생 2'가 미리 선정된 화제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오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출제 의도] 글에 반영할 글쓰기 계획을 파악하기

③ (나)의 2문단에 이미 독서 대화를 위해 도서를 선정해 두었다는 내용이 있기에 독서 대화를 위해 선정할 도서의 분야를 제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2문단에 작년과 달리 선정된 도서와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도서부에서 세권의 책을 선정했다고 하였다. ② (나)의 2문단에 독서 대화에 참여하려면 10월 □일까지 도서부에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제출하여 신청하려는 내용이 있다. ④ (나)의 3문단에 '○○ 독서 대화'에 참여를 신청한 분들은 선택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행사 3일 전까지 도서부도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 '독서 대화'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한 소감을 제시하였다.

4. [출제 의도] 조건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⑤ '한 권의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면 넓고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은 '학생 1'이 언급한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한 경험은 학생 시절의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은 부제인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독서 대화'를 활용하여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자는 '학생 3'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㉔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출제 의도] 단어의 형성 방법을 파악하기

④ @에서 '갈-', '릴-'은 동사 어근이며, '도구'는 명사 어

근이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것은 합성어의 형성 방식이며, 동사 어근과 명사 어근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의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는 합성어이다. @에서 '오이', '껍질', '갈'은 명사 어근인데,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므로 참이다. ② 비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합성어이다. @에서 '갈갑갑갑', '사각사각'은 부사 어근, '갈'은 명사 어근이다.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형성 방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참이다. ③ @에서 '까-', '깍-'은 동사 어근이고 '노-'는 접사이다. 어근과 접사의 결합은 파생어이므로 참이다. ⑤ @에서 '박박', '쓱쓱'은 부사 어근, '-이'는 접사이다. 어근과 접사의 결합은 파생어이므로 참이다.

6. [출제 의도] 문장의 책임을 파악하기

① @에서 '내 친구의 것이다'는 '내 친구의 것'이라는 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해당 문장의 주어인 '자전거는'을 서술하고 있지만 '내 친구의 것' 자체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안건문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에서 '손가락이 길다'는 '손가락'이라는 주어와 '길다'라는 서술어를 갖고 있고, 문장 전체의 주어인 '영수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건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의 '내가 빌린'은 목적어인 '자전거'를 생략되었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고,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체언인 '자전거'를 수식하는 안건문장을 만든 것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되고 관형사격으로 쓰여서 체언인 '사람들'을 수식하는 안건문장이다. ③ @의 '공원이 시작되기'는 안건문장이며, 부사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피아노를 잘 치는'은 안건문장이며, 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잘'이 쓰였다.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는 안건문장이며,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누구보다'가 쓰였다. ④ @에서 '공원이 시작되기'는 명사인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건문장이다. @의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숙였음'은 명사격으로 안건문장이며, 주격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 '피아노를 누구보다 잘 치는'은 주어인 '영수가'가 생략된 안건문장이다. @의 '마을에 사는'은 주어인 '사람들이'가 생략된 안건문장이다.

7. [출제 의도]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이해하기

④ 현대어 해석으로 보아 '사스'는 체언인 '등'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며, 체언인 '사슴'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또한 '도조기'는 체언인 '얼'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체언인 '도죽'에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가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현대어 해석으로 보아 '그'의 '드리는' '들'에 주격 조사 '이'를 붙인 것이다. 한편, '비취유미'는 '비취'에 '이'를 붙인 것으로 이때 '이'는 현대어에선 '과'의 의미로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네'는 '나'에 주격 조사 '이', '물'은 '부터'에 보격 조사 '이'를 사용하였다. ③ 현대어 해석으로 보아 '부터'는 '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부터'에 관형격 조사 '시'를 사용하였다. ④ '가짓'은 '상(相)'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가'에 관형격 조사 '시'를 사용하였다. ⑤ '모'는 '몸'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인 것이며, '부터'는 '부터'에 목적격 조사 '를'을 붙인 것으로,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8~11] (현대소설) 윤홍길, 「완장」

8. [출제 의도] 작품의 개괄적 특징을 파악하기

② 이 글에서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 지역 방언과 비속어가 사용되고 있다. 소설에 쓰이는 지역 방언과 비속어는 사실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정적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는 것이 아닌 순행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④ 인물의 내면 심리는 서술자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해당 소

설의 서술자는 하나이므로 이질적인 시선을 가진 서술자가 등장할 수 없다.

9. [출제 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파악하기

⑤ @은 '원 양이 참다못해 매섭게 쏘아붙인' 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인물이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청년은 용기를 내어 종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은 종술에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침 먹은 지내오' '땀진 먹은 배앓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인물이 느낀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조용히 종술의 눈치를 보는 버스 승객들의 상황을 '마지 훈우' 주인의 감시 하에 수확여행을 나선 학생들'이라는 상황에 빗대어 버스안의 위축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④ @에서는 종술이 농민들을 생각해서 낚시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것이 종술 역시 농민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전의 태도와 모순됨을 지적하고 있다.

10.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

④ 이 소설에서는 종술이 진짜 권력인 사장으로부터 받은 작은 권력인 저수인 관리인(완장)을 사장에 의해 해고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 모습이 소설 초반부의 기고만장한 태도와 대비되면서 권력의 부질없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최사장이 종술로 하여금 법에 따라 불법으로 행위를 단속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부질없음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11. [출제 의도] 서술상의 기능 파악하기

① [A]에서는 종술이 사장이 낚시를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내면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16] (기술) 한상욱, 「양자암호통신 개요 및 기술동향」

12. [출제 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③ 지문에서 RSA 알고리즘과 양자암호통신의 비밀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암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과 복호화 키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암호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 상거래 과정은 지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② 2~3문단에서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 4, 6문단에서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다. ⑤ 각각의 암호통신 방식이 실생활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13. [출제 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⑤ 3문단에서 언급한 RSA 알고리즘의 암·복호화 속도가 느린 이유는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암·복호화 키를 주고받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수신자가 미리 생성하여 공개한 공개키', '수신자는 공개키에 대응하여 생성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라는 언급에 따르면 공개키와 비밀키는 모두 수신자가 생성한다. ② 4문단에서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따르면 도청자는 단일광자에 걸린 정보의 일부를 가로챌 수 없기에 양자암호통신에서 컴퓨터 연산 능력이 발전해도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③ 4문단에서 '도청자가 단일광자 자체를 ~ 측정해 보낼 수 없다.'의 내용에 따르면 도청자는 '중첩'이라는 양자의 특성 때문에 수신자에게 도청 사실을 숨길 수 없다. ④ 3문단에서 RSA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데 비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진술에서 암호화된 문서가 전송 과정 중 유출되어도 수신자가 비밀키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출제 의도]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④ 2문단에 따르면 ㉠은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아야 암호화가 가능하다. 4문단에 ㉡ 또한 비밀키를 나누어 가진다고 서술되어 있다. 반면 ㉢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공개키를 사용하므로 송신자가 비밀키를 알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은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은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보안에 유리하며, ㉡은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기에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 ㉢이 비밀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 낮다. ②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의 일종인 RSA 알고리즘이 복잡한 연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문단에서 ㉢은 수학적 복잡성에 의존하지 않고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이 다른 방식에 비해 수학적 복잡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은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4문단에서 ㉢은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언급이 있다. 반면, 2문단에서 ㉢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② 5문단에서 BB84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수평 편광을 X 편광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대각 편광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X 편광필터를 이용할 경우 수평 편광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5문단에서 BB84 프로토콜은 양자암호 통신의 대표적인 키 분배 기술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암호화를 하는 과정에 대한 통신규약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에서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서술을 통해 편광된 광자가 다시 편광 필터를 통과하더라도 양자의 중첩 특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단일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단일광자 자체를 가로채는 것은 가능하다.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수직 편광과 역대각 편광은 '1'이라는 비트 정보를 표시한다고 약속하였다.

16.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⑤ 제시문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하게 사용한 편광필터의 비트 정보를 공유하면 비밀키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보기>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편광필터의 정보가 동일 한 것은 2,5,6,8,9번이지만 5번은 누락된 광자이다. 따라서 2,6,8,9번의 비트정보인 '1101'을 비밀키로 공유할 수 있다.

[17~21] (인문) 정동호, 「니체」

17. [출제 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⑤ 자연에 대한 흠스와 루소의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니체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18. [출제 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③ 3문단의 '자연 속에서 감성을 따르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여겼다'를 보면, 루소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므로 허상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로 보아 흠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② 2문단의 '그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로 보아 흠스는 A 씨가 강한 통치력으로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루소는 인간 육체의 결과물인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하였다.'로 보아 루소는 B 씨

의 친구가 B 씨에게 한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에서 비롯된 부정적 삶을 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고 니체는 생각하였다.'로 보아 니체가 아들의 본능을 도덕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억압하여 성인이 된 아들이 인간이 지닌 넘치는 활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하다.

19. [출제 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④ 2문단에 따르면 흠스는 자연에서 인간은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이라고 보았으며, 루소는 자연에서 인간을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니체는 그들의 주장이 자연에서의 인간의 삶에 집중하였을 뿐 자연 그 자체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루소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문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문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의 퇴폐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혐오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흠스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흠스는 자연 상태를 지향하는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흠스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흠스는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이 가진 긍정적 가치를 인간이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출제 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⑤ 5문단의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해 ~ 육체에 주목하였다.', '인간 중심적 사유에서의 육체가 이성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본 것과는 달리 니체는 자연의 활력이 분명하게 발현되는 육체를 중요시한 것이다.'의 정보에 따르면 인간이 스스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의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라는 정보에 따르면 적합하다. ② 4문단의 '이는 인간이 자신의 해석과 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자연을 재단하게 만들었다고 본다'라는 정보에 따르면 적합하다. ③ 4문단의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에 따르면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니체는 '자연이 활력이 넘치며 풍요롭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키고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것들과 끊임없이 경쟁'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21. [출제 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② 5문단에서 니체는 '이성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메를루 폰티는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이 독립적 실체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니체는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니체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데카르트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보기>내용으로는 알 수 없다. ④ 메를루 폰티의 관점과 '작은 이성'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⑤ '큰 이성' 관점은 '마음'을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닌 '이성'과 '육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22~24] (현대시) 유지환, 「선한나무」, 김용택, 「섬진강 1」

22. [출제 의도] 작품 간 특정 비교하기

① (가)는 화자가 '연체'인가 지나치는 길가에 서있는 노승을 보고 그 아래에서 노닐기를 즐겨하였으나, '하룻날' 다시 와보니 나무가 무참히 베어 넘어졌음에 애석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섬진강의 흐름을 따라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 '떨결 웃는 '지리산', '무등산' 등의 섬진강 주변의 대상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

라서 (가)는 시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특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찾아 볼 수 없고, (나)에서도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 명암의 대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나)에서는 수달당하는 농민들을 상징하는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과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후대자식'이 대립적 시어로 사용되어 그 속성을 표출하고 있다. ④ (가)에서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나)에서는 섬진강의 흐름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는 있다. ⑤ (가)에서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나)에서는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고갯길을 보라보며'에서 의인화 된 대상을 등장 시켜 공감적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23.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⑤ 마지막 연의 '묘막한 천공에 시방도 오고가는 신운이 없음이 아닐지니'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바람 있음은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이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승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는 구절에서는 화자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승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다. ②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다는 화자의 말에서 화자가 노승을 좋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화자가 노승이 '무참히도 베어 넘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노승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도록 하여 유지하는 것보다도 '빠개어 육신의 마음을 취'하는 것에 대해 화자는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울리'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울리'는 행위는 노승이 부채한 상황에서 노승을 다시 생각해보며 노승이 늘상 하는 행위를 따라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는 것은 화자 자신이 노승에 미치지지는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② '그늘린 이마'는 고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늘린 이마'에 '꽃등'을 달아주는 것은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피가도 피가도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는 '개울물'의 이미지는 농민들이 고된 상황에도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백으스러지게 그리워 일싸산'은 모습은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삶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농민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 일어서서 깔깔 웃'는 지리산 고된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마음으로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⑤ '후대자식'은 끊임없는 수탈을 일삼는 주체로서 '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대자식들이'며간다고 마을 강물인가를'이라는 구절은 수탈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